

|                           |                  |
|---------------------------|------------------|
| 오전(1부) 대방동                | 7시               |
| 오전(2부)                    | 7시               |
| 주일에배                      | 오전(3부) 10시       |
|                           | 오후(4부) 3시        |
|                           |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
| 서울 교회 02)533-9191         |                  |
|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



|                      |               |
|----------------------|---------------|
| 오전(1부)               | 7시            |
| 오전(2부)               | 10시           |
| 주일에배                 | 오후(3부) 3시     |
|                      | 저녁예배 7시       |
|                      | 금요일예배 (저녁) 8시 |
| 인천 교회 032)763-9191   |               |
|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5월 24일 (제105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걸럼

##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

얼마 전 기도원에 있을 때 밤새 강풍이 불어던 일이 있었다. 날이 밝아 나가보니 강풍으로 인해 심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와 꽃들은 다 넘어지고 뽑혀 있었다. 아직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탓일 게다. “불휘 기쁜 남간 바라매 아니 뭇새, 꽃도 코 여름 하나니”라는 용비어천가의 한 대목처럼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안심하고 다행이라 여긴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렸다는 진단에서였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고강도 믿음의 군사 훈련을 받았고, 이를 다 통과한 자들이므로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내게 있었다. 누가복음 8장에 씨가 떨어졌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거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라고 나온다. 어떤 이유로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지 못하는 것이고, 우왕좌왕, 작심삼일의 삶이기에 삶 자체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어디 이것뿐이라. 부부관계에도, 친구 관계에도, 상하 관계에도 믿음의 뿌리가 약기에 사소한 일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이다. 누군가 내가 세운 장로에게 “목사님이 당신에 대해 이러 저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안 좋은 이야기로 이간질을 했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장로가 나에게 대한 믿음이 깊다면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겠지만, 믿음의 뿌리가 얕다면 ‘설마~’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말 것이다. 자고로 다이어트 마이트가 터지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선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 안에 불신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요, 이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증거다.

믿음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리고, 인간관계의 뿌리는 신뢰와 의리로 내리고, 성공을 위한 뿌리는 집중력과 인내에 있다. 열매를 원하거든 뿌리를 깊게 내려라.

#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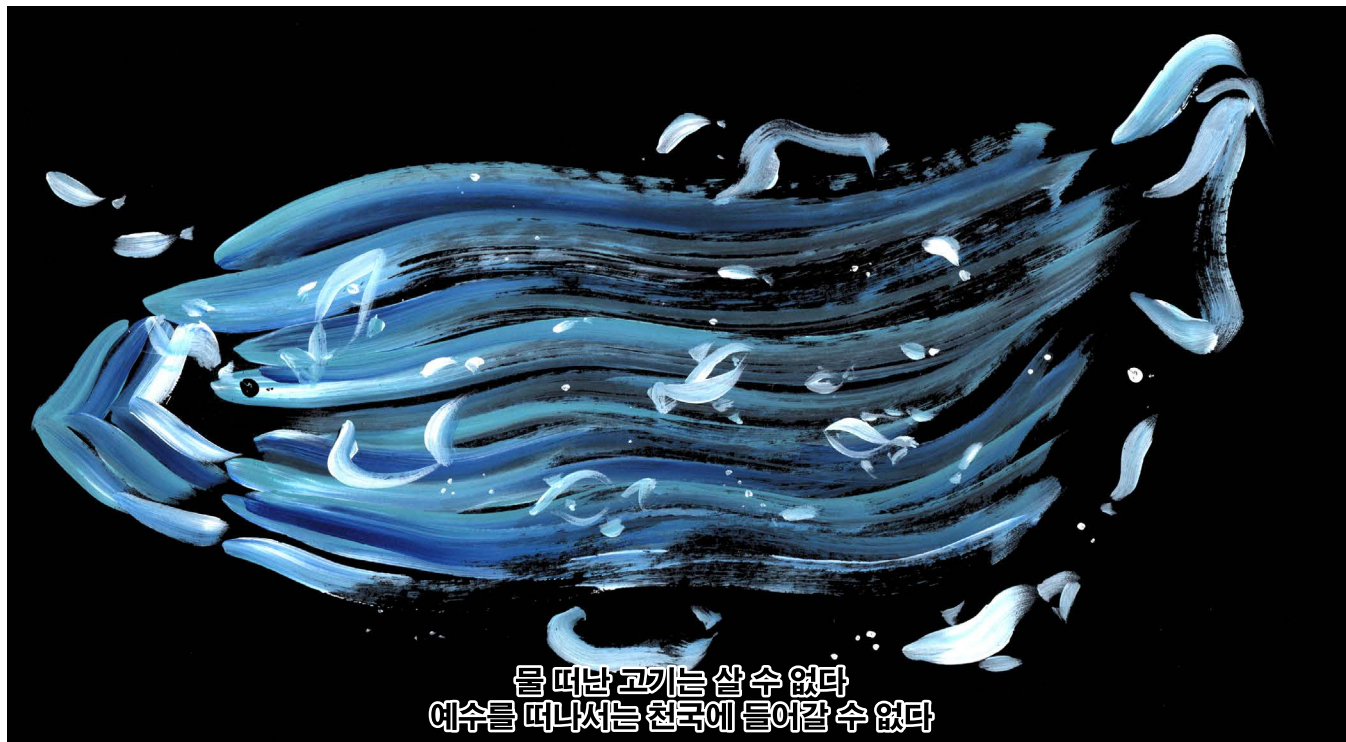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성경의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겸손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셨다.

“아무리 큰 고기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벌레 밥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기도가 떠난 사람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래든, 상어든, 제 아무리 큰 고기라도 물 떠난 고기는 잠시 버둥거릴 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

함을 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잠 16:18)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스라엘 초대왕의 지위까지 올랐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 들었지만, 사울왕은 이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어디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늘 겸손히 섬겼고, 부적절한 처사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인식하고 그 자녀까지 책임지는 겸손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잠시 방심하여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중죄를 범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의 경고에 바로 눈물로 회개하며 겸손히 몸을 낮췄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라 그 삶에 예수의 생수가 흐르지 않아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모릅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세로왕의 총애를 받던 절세미모의 왕후 와스디가 졸지에 폐비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왕의 총애로 교만해진 왕후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 그 명령을 무시했다가 당한 사건입니다. 왕궁파티에서 왕후의 미모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며 자랑 좀 해보려는 왕의 심기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불같이 화가 난 아하수세로왕은 대신들에게 그 처결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이 구동성으로 아녀자의 교만을 방지하면 죄다 물을 흐려놓아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게 될 터이니 왕후를 폐함이 마땅

부터 온 줄 알았다면, 늘 그 감사와 겸손한 자세로 살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짓을 행한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아들도 함께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 성경만의 일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아도 권력자들, 대기업가들, 심지어 주의 종들조차도 교만하여 한 때 명성이 드높던 그들이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는 끝없는 추락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글썽, 물 떠난 고기는 제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셨는데,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가 자기가 잘나 일색인 양 교만하여 물을 떠나니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일개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잠 18:12)라는 잠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고로 악한 마귀와 귀신의 밥이 되어 멸망의 선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난 자,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히 주를 섬기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넉넉한 복을 이 땅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1~12)



#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는 건설업을 하는 장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장로는 하청업자에게 일을 줄 때 절대 가격을 많이 깎지 않을뿐더러 하청업체 사장이 와서 점심을 사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돈을 벌었는데 밥은 내가 사야죠.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하며 그들을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 사장들이 감동해서 모든 일에 하자 없이 더 잘해준다고 합니다. 또 어느 장로도 분양이 다 끝나자 협력업체 사장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잘 가르쳤구나.” 하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 중 황금률(黃金律)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지요 선지자니라”(마7:12)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악을 주면 내가 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에게 사랑을 주면 나에게도 사랑이 온다는 말씀이지요. 하청업체를 제대로 대우해 주니까 불량품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청업체는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면 그 대가는 자기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는 말씀에 근거해서 옵니다. 하청업체에게 10을 손해 보게 하면 나에게 100 이상의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게 10만 큼 이익을 주면 그들로 인해 나에게 100 이상의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업체가 아니라 협력업체라는 표현이 옳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손과 발도 몸의 일부분이요, 손이나 발 어느 한 곳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전12:19~20).

## 인생은 만드는 것이다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다

나는 노사관계나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가마를 탄 사람과 가마꾼에 비교합니다. 가마를 타는 사람이 갑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을이라고 생각한 가마꾼이 가마를 뒤집어버리면 갑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요즘 패스컴을 통해 자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는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사이요, 상생하는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가마 타는 사람이 가마꾼을 생각하고 받들어주는 것이 곧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잘 되면 떡이라고 얻어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사 간의 상생, 협력업체와의 상생, 고객과의 상생, 투자자와의 상생을 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편하게 잘 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요13:34).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는 말씀으로 압축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은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그러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3:21)고 하셨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좋은 사람을 먼저 의지하면 나도 너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권

력 있는 사람, 힘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한순간에 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먼저 의지하고, 누구를 더 사랑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감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

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46:1~5)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하며 그분이 자기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행13:22)라고 하였고, 그가 늙도록 존귀하게 하셨으며,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송곡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며 그분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성령으로 저와 함께 역사하시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시며, 저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당당히 밝힐 때 하나님도 나를 천사 앞에서도 자랑하

시다(마10:32~33). 그러나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때는 하나님도 그런 자를 부끄러워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9:26).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그런 자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으실 것이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으실 것이며, 그들이 불려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찾아도 만나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잠1:25~29).

## 섬의 근원을 파면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얼마 전, 어느 장로의 기공 예배에서 저는 동석한 장로의 아들에게 “어딜 가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고 시인해라. 코로나 19 때문에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출입은 물론 폐부까지 꿰뚫고 계시단다(시139:1~4).”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쉬거나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일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지력자나 재력가를 찾지 않고 골방에 앉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답답할 겁니다. 더러 그들은 “~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시22:7~8)하며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우선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신명기 28장의 나라도 들어가도 복이요, 만지는 것이 다 복이요, 만물과 만인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잠11:25)는 말씀을 붙잡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다윗이 그의 용사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가 됩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10). 할렐루야!



#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더라

#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

먼저 교회 방송시스템을 HD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아울러 HD시스템을 갖추기까지 기도해주시고 적극 지지해주신 목사님과 기도와 물질로 동참한 직원 및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6년에 1차로 방송 중계카메라를 교체한 후 14년 만에 드디어 HD방송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위성 시스템까지 HD로 전환하지는 못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2002 한일월드컵을 지나며 우리나라의 방송시스템이 HD로 전환되고 각 가정마다 HD TV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전 방송과는 확연히 다른 화질개선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TV 방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HD방송시스템을 꿈꾸어왔을 것입니다. 대형교회들을 시작으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HD급의 소형캠코더가 대중화되면서 중소교회들도 HD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2013년부터 해외집회 촬영은 HD 캠코더로 촬영하기 시작했지만, 교회의 방송시스템이 미비하여 좋은 화질로 방송할 수 없었습니다. 늘 이러한 갈증을 갖고 있었기에 지난 2014년 10월경, 뜻을 함께한 직원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방송부문에 대해 광고를 드렸더니 몇몇 성도님들도 동참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워낙 HD방송장비들이 고가인 관계로 쉽지는 않았습니 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타교회 유튜브 방송과의 비교가 불가피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Only One인데 이를 담아내는 그릇이 부족한 것 같아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의 설교가 방송에 나갈 날도 분명히 올 텐데 좋은 화질로 담아놓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 목사님께 배운 것도 오직 기도! 우리는 HD 방송시스템을 갖추기까지 마음의 갈망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18일, 견적서를 들고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 그때의 기쁨은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런데 바로 코로나19사태가 터졌고, 약 2개월 동안 온라인예배가 진행되는 바람에 실제 HD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4월 26일 주일에배부터였습니다. 88체육관의 LED와 유튜브 방송화면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것도 오랜 갈망 끝에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과 환희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주셨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가 이르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더라, 아멘! 또 아멘!

Henry Han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나무나 식물 등이 오랜 세월동안 땅속에 묻혀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생성된다. 하지만 압력과 열을 덜 받은 것은 석탄이 되고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낸 것은 다이아몬드가 된다. 둘은 모두 똑같은 원소인 탄소 결정체이지만, 견뎌낸 압력과 온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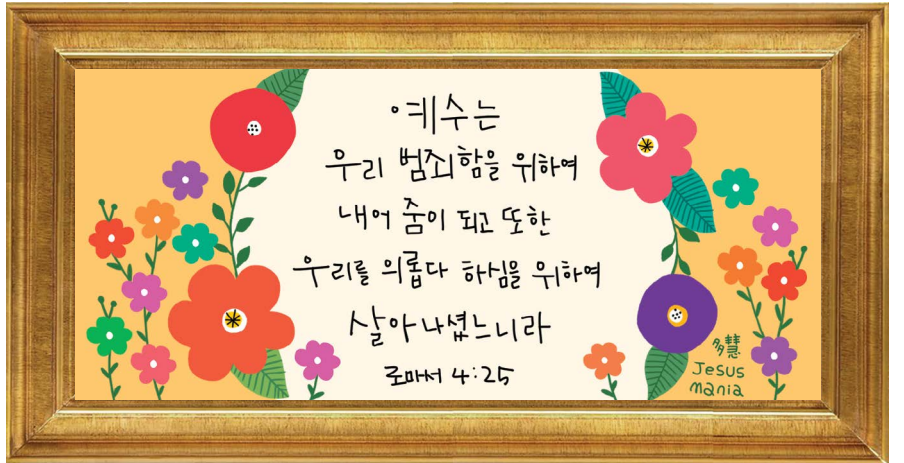
신앙도 이치가 이와 똑같다. 기독교 역사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어 이루어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욥 또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다(욥 23:10).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했음을 본다. 자식들이 걱정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 그것이 아쉬워 계단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는 분, 사태를 통해 두려움에 떠는 자신을 보며 신앙의 나약함을 회개했다는 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큰 죄를 지었다며 연신 허리를 숙이시는 분, 세태와 상관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 봉사를 쉬지 않는 분들 등... 사태를 통하여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 교훈과 유익으로 삼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음에 칭찬을 받은 것(계3:8)같이, 우리 예수중심을 그릇듯 칭찬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 나와 우리의 퀘렌시아

# 신용사회를 살면서

스페인어로 퀘렌시아(Querencia)라는 단어가 있다. 뜻은 피난처, 안식처인데, 이 말은 투우장에서 투우사와 싸우다 지친 소는 이곳으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고 한다. 즉 이곳은 다음 싸움을 위해 잠시 쉬며 기운을 되찾게 하기 위해 있는 장소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 바로 이 퀘렌시아다. 이 퀘렌시아는 한 마디로 안전지대로서 회복의 장소를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안전지대는 전쟁의 공포가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사고가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갈등이 없는 곳, 다툼이 없는 곳, 경쟁이 없는 곳, 그리고 평화가 있는 곳일 것이다. 바로 이런 곳이 퀘렌시아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곳은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사망이나 애통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흑암이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야 할 곳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가족도 방주에 있었고, 애굽에 만자들이 죽는 재앙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있어 안전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 또한, 바로 집이기에 집에 있으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 땅에서 최고, 최선의 안전지대는 집이다. 우리의 집, 즉 가정은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곳이며, 편히 쉴 수 있는 치유의 장소이며, 믿음과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삶의 안식처다. 집에는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이 있다. 그 가족 중에서도 여리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의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은 엄마의 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품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시12:5)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라는 대목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삼상22:23).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현대사회를 흔히들 신용사회라고 한다. 신용사회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용이 있으면 돈을 빌려 물건을 사거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용은 등급이 매겨지고 관리된다. 각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한 후, 거래신청의 승인여부와 함께 이자율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하므로 평소에 자신의 신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목사님 설교가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부요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사람의 신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가 있다. 증자의 아내가 한 번은 시장에 가는데 아들이 울며 따라오니까 “집에 있으면 엄마가 시장에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주마.”라고 말했다. 아들은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 증자의 아내는 시장을 잘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집에 오자 증자는 진짜 돼

지를 잡으려고 했다. 아내는 깜짝 놀라 “아이를 달래려고 장난으로 했던 말인데 진짜 돼지를 잡다니요?”라고 하자 증자는 “아이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데, 지금 아이를 속이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소.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아이는 어미를 믿지 않게 되므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요.”라고 했고, 할 말이 없어진 증자의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증자는 결국 돼지를 잡았다.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보증수표’라고 말해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일 뿐이다. 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말과 행함이 함께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말씀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것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피하도록 해준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같이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 성립된다. 잃어버린 신용을 회복하는 길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다.

임택함 목사



덕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올해 2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결국 감염병의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되는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사업이 대폭적인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 예상했는데 갑자기 불어 닥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아야 할 대금들이 수개월 이상 늦어지게 되어 답답한 심정이 지속되었고, 연초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개발 건들이 모두 무산되면서 엄청난 실의에 빠졌습니다. 보통 3~4월이면 수많은 기업에서 외부 강의 문의가 빗발치는데 범국가적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단 한 건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라에서 종교행사, 여행,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두 달이 넘

게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때문에’ 삶과 ‘덕분에’ 삶에 대해 가르치시며 위기가 오면 그 탓을 하기보다 그 덕분에 얻은 것을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욱 간절한 믿음을 얻었고, 가족 간 거리는 좁혀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고, 분열되었던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초기엔 한국인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해외동포들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차별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입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잘 해결한 덕분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산업 활동이 일부 정지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게 되었지만 아 이러니하게도 인간에 의해 훼손되었던 자

연은 보다 건강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저는 평소보다 두 배, 세 배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종종 빠지던 수요일예배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족 모두가 사무실에 모여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매주 인천 교회로 향했습니다. 두 주전에 다시 찾은 KBS88체육관에 입성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가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휴대폰도 만지작거리며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두 달 만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니 기쁨이 넘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밖에요. 저는 코로나 덕분에 기도가 일상이 되었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려운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마음에 가득한 부정의 씨앗은 버리고 그 덕분에 무엇을 얻을지 기대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테니그 대표 김운유 집사**

Good News

예전에는 어떻게 길을 찾아다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십 수 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먼 길을 떠날 때면 두터운 지도책을 꺼내서 대략적인 길을 숙지하고, 가는 길에 몇 번씩이나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면서 목적지를 찾아갔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보급으로 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찾아가겠다

고 경전을 연구하지만, 그 경전에 기록된 지도는 해독하기도 어려운 난해한 지도이며 미완성본입니다. 평생을 연구해도 그 자리만 맴돌다가 인생이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며, 유능한 가이드입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길치들에게 내비게이션은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길치인데 고집까지 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지혜 중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 ‘건강한 비만’은 있을까?

키 175cm에 몸무게 80kg의 두 남성 A와 B가 있다. 키와 몸무게는 똑같으나 건강상태는 다르다. 두 사람 모두 비만이지만, A는 지방간과 간수치 상승, 당뇨병에 가까운 혈당 수치 상승,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성지방 수치 상승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B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B는 건강한 것일까?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진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지방간 등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암 발생 위험도 커진다. 그러나 종종 비만하면서도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소위 ‘건강한 비만인’을 볼 수 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비만 인구의 약 30% 정도는 비만하면서도 대사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정말 건강한 비만이란 있을 수 있을까?

성균관 의대 강북삼성병원의 연구팀은 만 30~59세 사이의 대사적으로 이상이 전혀 없는 2,599명을 대상으로 연구 시작 시점에서 비만이긴 하지만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비만군과 건강한 정상 체중군을 비교하여 7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비록 연구 시작 시점에서 건강한 비만인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 후 정상 체중군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2.9배, 지방간이 2.7배, 고중성지방혈증이 1.5배, 대사증후군이 1.8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비만인에게서 향후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살이 찐 사람은 비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겠단다.

그렇다면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인의 암 발생 위험도는 어떻게? 대장암 선종의 경우 위험도가 50%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내장지방형 비만’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지방이 내장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비만형을 일컫는 것으로 과하지방형 비만보다 내장지방형 비만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다.

비만은 에너지의 과잉 공급으로 지방 조직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한다. 그런데 비만으로 인해 이러한 물질들 사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지방과 포도당 대사 이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생기게 된다. 지금 당장은 이상이 없는 비만이라도 좀 더 건강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적절한 운동과 식이조절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자.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 세월 참 빠르구나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있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두 달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아진 후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며 달력을 보니 벌써 5월이 다 되었다. 집에서만 있었을 뿐인데 벌써 1년의 중간 정도에 서 있다.

요즘 두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 늘 봐 왔지만, 어느 날 다시 아이들을 자세히 바라보니 벌써 이렇게 커 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어딘가 조금 더 성숙해져 있고, 말은 또 어찌 그리 잘하는지. ‘와, 빨리 크는구나!’ 하며 내 나이를 생각해보니 벌써 40에 가까워져 있다. 아직 젊다 생각했는데 내가 어렸을 적 굉장하 어른이고, 정말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되어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을 자세히 바라보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한다. 얼굴에, 손등에 주름이 많이 생기었고, 흰머리는 언제 이렇게 많아지셨는지. 늘 그곳에,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계실 것 같아 그동안 무심했던 내 모습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열떨결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뭘 하다 왔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 그제...’ 하며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도록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주님께서 물어보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먼저 품에 안겨 수다 떨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늘 상기하면서.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전도서 11:9).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9장 8절)

잘 익은 과일은  
향도 좋다